

# 탄소산업 강점 살려 수소경제 선도

### 탄소융합기술원, 산자부 '대용량 수소 이송용기 개발 공모' 선정 2022년까지 국비 50여억원 지원 받아 수소 운송 압력용기 개발

전주시가 강점을 지닌 탄소융합기술을 활용해 미래먹거리로 주목받는 수소산업을 선도하는 수소경제로 도시로의 도약을 꾀한다.

(재)한국탄소융합기술원(원장 방운혁, 이하 기술원)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대용량 수소 이송용기 개발'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2년까지 약 50억의 지원을 받아 수소 운송을 위한 대형 수소압력용기 개발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현재 시중에서 사용 중인 수소운송용 튜브트레이러의 경우, 차량의 총중량이 약 40톤에 1회 운송량이 약 200kg 수준이어서 도심 내 도로의 화물차 총중량(차량+트레이러 합 32톤)제한을 초과하고 있다. 일례로, 서

울시의 경우 교량과 고가도로, 입체교차로, 하천복개, 일반도로, 터널 등 115개 시설의 경우 총중량 32톤을 초과하는 차량은 진입이 제한되고 있어, 대한민국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운송·저장량 증대 및 총 중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기술원은 1회 수소운송량 1톤을 만족하면서 화물차 총중량 제한을 넘지 않는 수소저장용 튜브트레이러 개발을 위해 국내 기업 및 기관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최근 국비 지원 대상 과제로 선정됐다.

기술원은 향후 이 사업을 통해 △운송용 탄소복합재 기반 대용량의 고압용기 개발 △수소 스키드 패키

징 기술 및 내구, 내환경성 등 신뢰성 확보 △대용량 복합재 고압용기 안전성 검증절차 및 운용기술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기술원은 또 탄소 소재·수소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이 끝난 후에는 해당 압력용기에 사용되는 대량의 국산 탄소섬유를 적용해 제작할 예정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수소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해지고, 운송비 절감 등 경제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나아가 수소 공급 가능지역이 확대되는 것은 물론, 압력용기 탄소섬유 국산화를 통해 탄소소재와 수소산업의 융합으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수소경제 진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운혁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은 "수소 산업에서 탄소소재는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소재"라며 "이번 수소압력용기 개발로 탄소산업과 수소산업의 융합을 통해 전주시가 각종 수소저장용기 산업의 선도도시이자, 수소경제 시대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형조 시 신성장산업본부장은 "미래먹거리인 수소경제를 선도도시가 되기 위해 전주시는 현재 송전동 인근에 전주 제1호 수소충전소를 구축 중이며, 제2호 충전소 사업운영자 선정 및 제3호~제4호 충전소 구축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탄소-수소 인프라 조성과 민간인 수소차량 보급 지원 등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 전기차량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다양한 치안서비스 제공

### 전북경찰청, 우정청과 협약



전북 경찰이 도민의 범죄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동체 치안활동을 추진한다.

전북지방경찰청과 우정청은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일환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상호 협력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에 지리감이 밝은 우체국 직배원이 근무 중 알게 되는 각종 치안정보와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을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고 초기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체결됐다.

특히, 담당구역 내 범죄불안 요소가 발견되면, 범죄예방단팀의 면밀한 진단을 통해 지자체 및 시설주와 협조해 범죄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경찰서별로 우체국 직배관을 방문해 직배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택배차량 측면에 탈부착식 '탄력순찰' 홍보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범죄예방 홍보에도 힘 쓸 예정이다.

조용식 경찰청장은 "이번 업무협약

을 통해 지역사회 모두가 치안활동에 참여하는 파급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민들에게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협업 치안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청림 우정청장은 "우체국 직배원이 직배업무 수행 중 치안 사각지대 등 위험요인 발견하면 즉시 경찰서에 신고할 것"이라며 "범죄예방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전북경찰과 함께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수요자 위주 치안활동으로 도민의 불안요인을 찾아서 해결하는 정성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민의 요구에 맞는 환경적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다운 기자

## 전주시, 찾아가는 이동 여성취업상담 운영

전주시가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 찾아가는 취업상담에 나선다.

시와 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센터장 박성숙, 이하 새일센터)는 6일 LH주거복지사업단 마이홈상담실에서 취업정보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력단절 여성 및 전업주부 등을 대상으로 이동 취업상담 프로그램을 찾아가는 새일센터를 운영했다.

연중 운영되는 '찾아가는 새일센터'는 대형마트, 아파트, 지역 내 행사, 실업급여장 등 여성들의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찾아가 여성일자리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구직신청서 작성 및 취업상담을 통한 진로설계 및 취업 정보를 제공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새일센터는 매일 첫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LH주거복지사업단 마이홈상담실에서 주기적으로 동일한 장소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10월 말 기준으로 총 58회의 찾아가는 새일센터가 운영됐으며, 경력단절여성 등 354명이 취업상담을 받았다.

이와 함께 새일센터는 올해 매월 1회 이상 LH주거복지센터, 전주시보건소,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등 협업기관과 연계해 효자휴먼시아 1단지~6단지에서 합동 이동 취업상담실을 운영, 여성일자리상담과 함께 주거복지상담, 건강상담, 노인일자리상담 등 종합복지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보건소는 6일 전주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생물테러 대비·대응 소규모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 생물테러 대비 훈련 '실전과 같이'

### 전주시보건소, 민·관·군·경 합동 대응 방식으로 진행

전주시보건소는 6일 전주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생물테러 대비·대응 소규모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생물테러'는 잠재적으로 사회 붕괴를 의도하고, 바이러스·세균·곰팡이·독소 등을 사용해 살상을 하거나 사람, 동물 혹은 식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주시보건소가 주관한 이번 모의 훈련은 덕진경찰서, 덕진소방서, 육

군35사단 화생방지원대, 전북대학교병원 등 유관기관 초동대응요원 100여명이 참가하는 민·관·군·경 합동 대응 훈련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훈련내용은 백색가루(탄저균) 살포를 가정한 초동대응훈련으로 △경찰 신고접수 △현장출동 및 상황전파 △노출자 대피 △주변통제 △보건의료소 응급진료소 설치 및 다중탐지키트검사 △소방서 환경

검체 채취 △보건요원 검체 이송 △군부대 노출자 제독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보건·경찰·소방·군 등 생물테러 초동대응기관들이 사전 대응 절차 및 세부역할을 숙지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상호통합과 공동대응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생물테러를 대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훈련에서 발생된 절차상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 및 보완해 실제 사건 발생 시 신속·정확하게 대응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건협, 창립 55주년 맞아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본부장 배기웅, 이하 건협 전북지부)가 오늘 창립 55주년을 맞이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전북지부는 건강검진과 건강증진에 특화된 의료기관으로 국내 건강검진 전문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세계보건기구 건강증진병원(WHO)으로 3회 연속 등록됐으며 공익의료서비스 부문 '2018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착한브랜드 대賞'을 수상했고, '2017 자원봉사 인증기업'에 선정되어 지역사회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우수내시경실 인증을 통해 검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배기웅 본부장은 "최고의 장비와 의료진 구축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각종 암의 조기 발견 및 건강생활을 위한 보건교육 등의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히며 "공익의료기관이라는 명성에 맞게 기초생활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특수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무료건강사단을 통한 자원봉사와 헌혈사업 등 사회공헌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윤상 기자

## 겨울철 시내버스 승강장, 온기로 '가득'

### 전주시, 한파 저감시설 설치 기존 설치된 324개 저류장 373개 탄소발열의자도 점검

전주시가 한겨울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추위에 떨지 않도록 따뜻한 시내버스 승강장 만들기 나섰다.

시는 올해 한파저감 시설 설치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및 재난관리기금 등 6200만원을 확보, 겨울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시내버스 승강장 한파 저감시설 설치 및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이용객이 많은 주요승강장에는 칼바람을 피할 수 있는 방한텐트를 설치하고,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탄소발열의자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 기존에 설치된 탄소발열의자도 본격적인 가동에 앞서 시설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시는 지난해 56개소에 설치했던 방한텐트를 재설치하고, 평화동 등 이용객이

많은 유계승강장 4개소를 추가해 총 60개 주요 승강장에 방한텐트를 설치해 겨울 한파에 대비기로 했다. 또한 팔복동과 호성동을 중심으로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과 주민들의 설치 요청이 들어온 승강장 등 유계승강장 10개소에 탄소발열의자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기존에 설치된 324개 승강장의 탄소발열의자 373개에 대해서도 시설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방한텐트와 탄소발열의자 등 겨울철 온기를 더 해줄 시설뿐만 아니라, 여름철 에어컨과 승강장 지붕 그늘막 설치, 폭염예보 발령시 버스승강장 얼음 비치 등을 추진해왔다.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승강장에 공기청정기와 음수대, 미니도서관, 자전거보관대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고 있다.

이에 대해 장병호 전주시 시민교통

본부장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날씨로 겪을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원터형 공간으로 시내버스 승강장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편의점서 담배 흡친 10대 검거

안산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17)씨를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고등학교 1학년인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0시경 전주시 완산구 모 편의점에서 업주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진열대에 있던 1만 3500원 상당의 담배 3갑을 훔쳤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완산구의 한 PC방에 있는 A씨를 검거했다. /정다운 기자

범죄신고 112 화재신고 119

## '아름다운 기억, 오랫동안 간직하세요'

### 전주시보건소, 29일까지 평화동 치매안심마을 60세 이상 어르신대상 치매집중검진 실시키로

전주시가 치매안심마을인 평화주공 1단지 주변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을 돕기로 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해 지난 4일부터 오는 29일까지 평화주공 1단지 관리사무소에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평화주공 1단지는 지난 5월부터 치매를 앓는 대상자들이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곳에서 가족 및 이웃의 도움을 받으며 거주할 수 있는 치매안심마을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조기검진 사업은 치매안심마을과 인근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 약 9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평화주공 1단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에 대해서는 추가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인지강화 프로그램에 연계해 추후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한편 전주시 치매안심센터는 △배회 가능 어르신 인식표 사업 △치매치료 관리비 및 조호물품 지원 △맞춤형 사례관리 △고위험군 인지강화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주지역 병·의원 33개소와 협약을 통해 치매조기검진사업도 펼치고 있다. /김윤상 기자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완산구청 후정에서 '소외이웃을 위한 사랑함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 "사랑담은 김장김치로 온정 나눠요"

###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 저소득 가구에 전달

완산구(구청장 최라기) 해바라기봉사단(회장 주부월)은 추운 겨울철을 대비해 소외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완산구청 후정에서 '소외이웃을 위한 사랑함 김장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해바라기봉사단은 회원 400여 명이 참여해 정성들어 담근 김장김치를 동절기 준비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 중증

장애인, 부자세대, 다문화가정 등 200세대에 전달했다.

김장김치 나눔은 올해 있던 태풍과 가을 장마로 배춧값이 폭등한 만큼 소외된 이웃들에게 더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10여명도 함께 해, 겨울을 준비하는 한국의 품을 체험하고 훈훈한 한국의 정을 나눴다. /김윤상 기자